

## 세계종교 교수법을 통한 다문화 종교교육 - 영국과 한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 -

안 신  
경희대학교

---

### 〈요 약〉

---

21세기 종교교육의 현장에서 종교학자가 세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종교들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에서 교수하는 일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인류의 오랜 문명과 현대의 종교다원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종교를 설명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나름대로 종교에 대한 해석의 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교수법들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대학교에서 세계종교를 교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한 종교교육의 대안들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영국 대학교에서 강의되고 있는 세계종교의 경우, 에딘버러대학교에서 강의되고 있는 세계종교 강좌를 분석하였다. 특히 종교전문가의 공동강의와 튜터(강사)를 통한 강독수업으로 강의내용의 깊이와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사용하는 강의교재를 선택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영국종교학자가 집필한 저서를 고려함으로써 영국의 종교현상으로부터 고립된 세계종교에 대한 지식을 일반적 수준에서 제공하는 대신에, 세계종교와 영국종교를 동시에 연관시켜 강의하는 통합적이며 관계적 방식을 지향한다. 나아가 종교현상학적 태도와 종교인류학 혹은 종교사회학적 방식을 가미함으로써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한 지역적 이해와 심층적 설명에 도달하려고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에서 강의되고 있는 세계종교의 경우, 기존에 나와 있는 세계종교에 관한 저서들이 교재로서 갖고 있는 내용과 방법 면에서의 한계가 있으며, 더불어 학기 단위로 충분한 일정을 확보할 수 없는 시간적 제약에 부딪혀 담당 교수가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의 종교상황과 수강생들의 관심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강의가 제공되고 있지만, 서구 중심적 시각의 전달과 일방적인 강의의 흐름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자는 (1) 종교공동체에 대한 현장조사의 기회를 확대하고, (2) 종교공동체 대표(혹은 종교인)를 강의에 초청하거나 인터뷰하며, (3) 미디어 영상매체를 활용

하여 현대문화에 나타난 종교적 변용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나아가 (4) 축제에 참여하거나 박물관 혹은 특별전시회를 방문한 후에 감상문을 제출하는 과제도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5) 학생이 종교를 만들거나 자신의 일대기를 종교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과제는 제도적인 종교의 의미를 넘어 종교적 물음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핵심 주제어: 세계종교, 교수법, 다문화 종교교육, 현장조사, 미디어교육, 강의계획서

## I. 서론: 왜 세계종교 교수법인가?

‘인문학의 총체적 위기’와 ‘학제 간 연구의 확산’이 이미 화두(話頭)가 되고 있는 21세기에, 한국에서 종교학자로서 세계종교(world religions)를 교수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과 영국에 거의 모든 주요 대학교에 종교학과가 설립되어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한국의 대학교에는 종교학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특정종교의 배경을 지닌 종단학교 내지 사립학교에서 특정종교의 입장에서 세계종교가 강의되고 있다. 그나마 명맥과 전통을 유지해 온 서울대와 서강대의 종교학과도 정부의 교육개혁시책에 따라 학부제가 시행되면서 종교학 전공자가 대폭적으로 줄어든 상태에 있고, 한신대의 종교문화학과가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학전공 학부생을 교육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톨릭대의 종교학과와 감리교신학대의 종교철학과에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학 방법론과 세계종교에 관련된 강의가 소개되고 있다.<sup>1)</sup>

세계종교를 가르치는 교수법에 정도(正道)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종교 교수법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역과 문화마다 복잡하게 나타나는 세계종교 교수법의 다양한 형태를 관찰하면, 기존의 방법론들이 너무 일반화된 지식을 유포하고 전달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단편적인 지식전달의 경향을 극복하고, 수강하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교양과 다문화 한국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소통의 덕목과 공존의 지혜를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영국의 에딘버러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와 서울 소재 대학교들(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에서 세계종교를 교수하고 연구하면서 발견한 주요 교수방식의 특징과 차이를 크게 내용과 형식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것이다. 먼저 내용면에서 강의되는 ① 주요 종교전통들이 무엇이며, ② 주로 어떤 교재를 중심으로 ③ 어떤

1) 서강대와 가톨릭대 종교학과는 경우, 종교학전공과 신학전공으로 구분하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서울대는 박사과정까지 한신대는 석사과정까지 설치되어 있다.

주제를 강의에서 교수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그 장단점을 기술할 것이다. 둘째 형식면에서 종교학의 다양한 방법론(종교사, 종교현상학, 종교심리학, 종교사회학, 종교인류학, 비교종교학 등)에 대한 지식전달과 사례적용을 가미한 형태의 세계종교 교수법 개발의 가능성과 실효성 및 기대효과를 검토할 것이다. 셋째, 세계종교를 교수하는 구체적 맥락(context)으로서 영국과 한국의 종교적 상황과 청자(audience)로서 수강자가 지닌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교수가 강의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여, 한국의 상황에서 세계종교를 교수하는 하나의 가용한 한국적 모델을 제안할 것이다.

필자는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동안 강사(Tutor)로서 인문사회과학부에 개설된 종교학 전필과목인 ‘세계종교’(Religion 1)와 ‘종교학 방법론’(Religion 2)을 2년 동안(2004-2006) 강의했다. 그리고 귀국 후 현재까지 서울대에서 ‘세계종교입문’(2007-2009)을, 서강대에서 ‘종교의 이해’(2007-2009)를,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세계종교와 한국종교’(2009)를 강의했다.

세계종교 교수법에 대한 강의의 내용과 형식을 비교분석하고 평가하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강의 교재들이 제공하는 콘텐츠(contents)와 강의 내용의 전달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강의방식 및 종교전통별로 학생들이 참여를 자극할 수 있는 유용한 강의방법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 II. 영국의 세계종교 교수법: 에딘버러대의 사례

영국 에딘버러대학교는 스코틀랜드 종교학의 ‘메카’이다. 양적인 면에서 종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개신교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수를 추월한 지 이미 오래이다. 스코틀랜드교회(장로교)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학부(theological faculty)는 2006년에 인문사회학부(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로 통합됨으로써 학문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대신에 인문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며 학제 간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기독교 신학은 인문학 안에 자리매김을 했고, 반면에 19세기의 신생학문인 종교학(religious studies)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확장되었다.<sup>2)</sup>

에딘버러대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종교학강좌는 바로 세계종교를 교수하는 “종교 1”(Religion 1)이라는 전공필수과목이다. 이 강의는 1년 동안 운영된다는 점에서

2) 안신·허우성, 『스코틀랜드 종교학의 회고와 전망』, 『인문논총』 59 (서울: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08), 375-407쪽.

한국의 대학교들에서 한 학기 단위로 교수되고 있는 세계종교강의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첫째, 세계종교는 한 명의 교수가 강의를 전담하여 진행하지 않고, 학기당 3-4명의 교수가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자신의 전공분야를 번갈아 강의한다. 일 년이면 6-8명의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 600여 명의 학생들을 교수하는 셈이다. 때때로 종교전문가(아프리카종교 등)를 초빙하거나 독특한 전공분야(무속, 북미 인디언 종교, 한국종교 등)를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에게도 강의할 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2년 동안 봄학기(1학기)에는 ① 토착종교, ② 인도종교, ③ 중국종교, ④ 신종교를 교수하고, 이어서 가을학기에는 ⑤ 중·근동의 고대종교, ⑥ 유대교, ⑦ 기독교, ⑧ 이슬람을 교수했다. 각 종교를 담당할 교수를 살펴보면, 토착종교는 미국출신 종교현상학자이며 아프리카 종교전문가 콕스(James Cox)가, 인도종교는 인도 출신 종교인류학자이며 힌두교 전문가 오픈쇼(Jeanne Openshaw)가, 중국종교는 잉글랜드 출신 문화인류학자이며 아시아지역 전문가 쾨핑(Elizabeth Koepping)이, 신종교는 스코틀랜드 출신 사회학자이며 뉴에이지 종교전문가 서클리프(Steven Sutcliffe)가 담당했다. 세계종교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지역에 나타나는 토착종교와 함께, 21세기를 전후에서 유럽에서 흥미하고 있는 뉴에이지 종교를 다룬다는 사실은 유럽 종교학이 지닌 정치적 식민지 역사의 기억과 현대 기성종교의 붕괴 후에 등장한 대안종교들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반영한다. 물론 세계종교에서 교수되는 종교전통의 내용도 교수의 연구학기나 안식학기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될 수 있다.

| 주차 | 1학기                                                              | 2학기                                                         |
|----|------------------------------------------------------------------|-------------------------------------------------------------|
| 1  | 1. 강의소개<br>2. 종교학: 방법, 물음, 개념<br>3. 학문적 연구: 배움, 연구, 글쓰기          | 1. 종교학의 주요 쟁점들<br>2. 남아시아종교에 대한 개괄<br>3. 역사와 개념: 베다와 인더스 문화 |
| 2  | 1. 유대교와 유대인의 개념과 범주<br>2. 원천과 자료: 토라와 타나크<br>3. 원천과 자료: 탈무드와 할라카 | 1. 힌두의 우주관과 신들<br>2. 힌두 사원들과 순례<br>3. 힌두 시간관, 업, 윤회, 삶의 목표  |
| 3  | 1. 유대교 공동체의 생활<br>2. 유대교 개인의 생활<br>3.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 1. 세속적 삶의 포기<br>2. 부처와 초기 불교<br>3. 존재의 양식과 삼귀의              |
| 4  | 1. 현대 유대교 운동들<br>2. 홀로코스트와 이스라엘 국가<br>3. 현대 세계의 유대교              | 1. 불교의 연기, 업, 윤회<br>2. 사성제<br>3. 남아시아공동체의 디아스포라             |
| 5  | 1. 무함마드의 생애<br>2. 꾸란과 하디스<br>3. 이슬람 의례                           | 1. 아프리카 토착종교의 최근 주제들<br>2. 개념과 전문용어의 문제들<br>3. 방법론의 문제들     |
| 6  | 1. 이슬람 신학<br>2. 이슬람 법<br>3. 이슬람 종파 (시아파와 수피즘)                    | 1. 영적 존재의 장소<br>2. 세계관들과 우주론들<br>3. 신화와 의례                  |

|    |                                                                    |                                                                         |
|----|--------------------------------------------------------------------|-------------------------------------------------------------------------|
| 7  | 1. 이슬람 현대사상가<br>2. 발전인가 변화인가?<br>3. 서구의 이슬람                        | 1.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의미와 영역<br>2. 아프리카 토착종교의 지구적 차원<br>3. 아프리카 종교공동체의 공적 역할   |
| 8  | 1.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br>2.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중요성<br>3. 정체성과 이단                | 1. 20세기 후반 유럽의 신종교 부상<br>2. 세속화와 다원화<br>3. 종교의 선택과 구도                   |
| 9  | 1. 원천과 자료: 기독교 경전읽기<br>2. 원천과 자료: 의례로서 기독교 신조<br>3. 원천과 자료: 기독교 성례 | 1. 새로운 이교 종교의 부흥 - 개괄<br>2. 옛 종교 새 종교? - 위카 역사기술<br>3. 신념과 의례 - 위카의 민속지 |
| 10 | 1. 기독교와 교회들<br>2. 현대 기독교 운동들: 여성신학들<br>3. 현대 기독교 운동들: 해방신학들        | 1. 뉴 에이지 형성 - 개괄<br>2. 사례 연구 - 피드온 공동체<br>3. 사례연구 - 캔달의 전인적 환경          |
| 11 | 1. 유대교<br>2. 기독교<br>3. 이슬람                                         | 1. 남아시아종교들<br>2. 아프리카종교들<br>3. 신종교들                                     |

위에 제시한 강의 계획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2008년도부터 2009년도 1학년 종교학전공자들이 수강한 강의의 계획서는 신진교수들의 등장으로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sup>3)</sup> 1주차에는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지는데, 강의계획서에 대한 숙지를 통해 목표와 평가 및 진행방법이 공지되며, 종교학 방법론에 대한 개괄과, 학문적 글쓰기에 대한 소개로 첫 주 강의를 진행한다. 이후 2-4주차에 유대교, 5-7주차에 이슬람, 8-10주차에 기독교가 그 분야 전문가에 의하여 강의된다. 마찬가지로 2학기에 1-4주차에 남아시아 종교들이, 5-7주차에 아프리카 종교가, 8-10주차에는 신종교운동이 강의된다. 그러나 동아시아 종교를 대표하는 유교, 도교, 신도가 강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 분야 종교전문가가 연구학기(혹은 안식학기)를 맡게 되면 특정종교에 대한 강의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이 점에서 앞으로 불 한국의 사례처럼 세계종교를 담당하는 전담교수가 필요하다.

둘째, 에딘버러대에서는 강좌당 학기별 수업시간이 총 42시간으로, 매주 3시간의 ‘강의수업’(lectures)과 1시간의 ‘강독수업’(tutorial section)으로 구성된다. 강의수업에서는 종교별 전공교수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강독수업에서는 강사(Tutor)가 학생을 10-15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묶어 개별적으로 지도하며, 강독범위에 대한 학생들의 숙지정도를 확인하고 토론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다. 개별지도를 하는 강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토론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언을 제공한다. 학기마다 2권 정도의 교재를 정하여 일정한 분량을 단계적으로 강독해 나가는데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학생은 매 시간 강독한 내용을 요약하고 동시에 2가지 이상 토론할 질문을 제시한다. 강독수업은 강의수업과는

3) 에딘버러대학교 세계종교 강좌 정보는 <http://www.div.ed.ac.uk/content/1/c4/12/67/First.pdf>을 참조하라.

달리, 강독내용을 이해하고 토론을 통하여 지식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한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불교, 신도 등)을 지닌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교재의 내용을 넘어 개인적 종교관의 상호교환이 일어나 대화를 통한 지식의 심화가 가능하다.

셋째, 학생의 보고서와 시험에 대한 평가는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평가시스템에 기초한다. 교수진과 강사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의 폭을 줄이기 위하여 격주로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와 강사 및 학생대표들의 합동회의가 개최된다. 이 모임에서는 학생의 직접적인 반응, 의사소통의 어려움, 진도와 내용의 수준 등을 재조정하고 강의수업의 교수들과 강독수업의 강사들이 학생대표들에게 받은 질문과 문제를 바로 논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이 신속하다. 학생들의 평가를 강의 도중에 바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강의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지만, 대체로 강의의 방향을 변경하기 보다는 강의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데에 모임의 초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강사는 교수로부터 직접 교수법을 배운다. 이러한 분위기는 학생들에게도 신뢰감을 주어 보다 진지한 수업참여로 이끈다. 그러나 학생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강독그룹 별로 대표를 뽑아 15-20명 정도의 학생이 이러한 교수와 강사의 모임에 참여하는데 자발적 참여이기 때문에 모두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일정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참여도 저조한 편이다.

넷째, 교재선정에 있어서 영국종교학자들의 저서를 주로 사용하며, 최근 1세대 종교학자의 저서 대신에 2-3세대 신진종교학자들의 편저로 교체되었다.<sup>4)</sup> 강의안은 매주 1-2장으로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준비되었다가 학생들에게 배포되며, 선택된 강독자료는 자체평가를 통하여 학기마다 변경된다. 예를 들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사용된 강독자료는 첫째에는 스마트(Ninian Smart)의 『세계종교』(*The World's Religions*, 2nd edition, 1998)와 피셔(Mary Pat Fisher)의 『살아 있는 세계종교』(*Living Religions*, 1997)를 사용했고, 이후에 우드헤드(Linda Woodhead)가 편집한 『현대세계의 종교들』(*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2002)과 힌넬(John R. Hinnells)이 편집한 『살아 있는 종교에 대한 안내서』(*A New Handbook of Living Religions*, 1997)가 사용되었다.

지금도(2009년) 에딘버러대 세계종교수업에서 우드헤드와 힌넬이 편집한 교재가 계속

4) 영어권 1세대 종교학자들의 대표적인 세계종교 관련 저서로는 E. P. Parrider, *What World Religions Teach* (London: GGH, 1963); John B. Noss, *Man's Religions* (London: CMP, 1974); Robert Ellwood, *Many Peoples, Many Faiths* (London: PHI, 1982); Owen W. Cole, *Six Religions in the Twentieth Century* (Cheltenham: HEP, 1984); Frank Whaling, ed. *Religion in Today's World* (Edinburgh: T & T Clark, 1987); Huston Smith, *The World's Religions* (Cambridge: CUP, 1998); Willard G. Oxtoby, *World Religions* (Toronto: OUP, 1996); Peggy Morgan and Clive Lawton, *Ethical Issues in Six Religious Traditions* (Edinburgh: EUP, 1996) 등이 있으며, 세계종교와 함께 기독교 토양에서 나타난 다양한 기독교계 신종교들을 함께 소개한 Linda Edwards, *A Brief Guide to Beliefs* (London: WJKP, 2001)도 <세계종교> 교과목을 위한 유용한 안내서로서 가치가 있다.

사용되고 있다. 각각 교재의 특징을 그 장단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스마트의 저서는 아시아종교에 대하여 다른 저서들과 비교하여 지역적 다양성과 변화의 복잡성을 보여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반부에는 고전적 형태의 세계종교를 다루고, 후반부에는 16세기 이후의 고전적 형태의 진화와 최근 동향들을 다루고 있다. 전반부에 다루어진 주요 종교전통들은 (1) 선사시대 종교, (2) 남아시아지역(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이슬람, 시크교), (3) 중국과 한국(유교, 불교, 도교), (4) 일본(신도, 불교), (5) 동남아시아(테라바다불교), (6) 태평양지역(토착종교들), (7) 아메리카(잉카, 마야, 아즈텍, 북미토착종교), (8) 고대근동(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 그리스, 이스라엘 종교), (9)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조로아스터교, 샤마니즘), (10) 그리스와 로마, (11) 고전 및 중세의 기독교와 유대교, (12) 고전 및 중세 이슬람, (13) 아프리카 종교이고, 다시 후반부에는 (14) 기독교의 개혁, (15) 북미 기독교, (16) 남아시아와 제국주의, (17) 현대 중국과 한국, (18) 현대 남동아시아, (19) 현대 일본, (20) 이슬람 확장, (21) 태평양의 제국주의 영향, (22) 동유럽과 구소련, (23) 현대세계의 아프리카, (24) 남미와 캐리비안 등을 분석하고 있다. 스마트는 기존의 세계종교에 대한 저서와는 달리, 세속적 이념(공산주의, 제국주의, 민족주의, 다원주의 등)을 종교적 담론 안에 포함시켜 그 종교적 함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매우 광의의 종교개념을 사용하였고, ‘세계관’(worldview)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일곱 가지 측면 즉 차원에 주목하였다.<sup>5)</sup>

- 1) 실천적이며 의례적 차원: 정기예배, 설교, 기도, 참선 등
- 2) 경험적이며 감성적 차원: 무함마드 계시경험, 바울 회심, 부처 득도 등
- 3) 이야기 혹은 신화적 차원: 창시자의 이야기, 경전, 의례에 대한 설명 등
- 4) 교리적이며 철학적 차원: 성육신, 신론, 삼위일체, 연기설 등
- 5) 윤리적이며 법적 차원: 율법, 안식일, 샤리아(이슬람 법), 아가페 등
- 6) 사회적이며 제도적 차원: 교회, 승가(불교공동체), 움마(이슬람공동체) 등
- 7) 물질적 차원: 예술, 이콘, 자연, 성지 등

스마트가 제시한 세계종교의 차원적 분석은 지역의 다양성과 이념의 종교적 차원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독자의 입장에서 강독자료로서 너무 광범위한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한 다. 특히 종교의 핵심교리와 실천적, 사회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종교의 기본적 구조를 그가 제시한 일곱 차원으로만 잡아가는 지나친 일반화의 약점을 안고 있다.

5) Ninian Smart, *The World's Religions*, 2nd ed. (Cambridge: CUP, 1998), pp. 13-21. 이 저서는 서울대 윤원철 교수가 2004년 번역하였는데, 서울대 전공강좌로서 〈세계종교〉강의에 강독자료로는 적합하지만, 교양강좌로서 〈세계종교입문〉에서는 종교학 비전공자 학생들이 강독하는데 부담을 느꼈다. 한글 번역본이 편집과정에서 너무 크고 굵게 발행되어, 도서관에 비치되는 ‘참고서’로는 적당하지만 학생들이 이 강의실에 가지고 다니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피서의 저서는 여성의 시각에서 세계종교들을 접근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뚜렷하다. 역사적 자료보다는 동시대에 존재하며 활동하는 종교의 기능과 의미를 주로 파악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가능한 한 “공감적 이해”를 시도했다.<sup>6)</sup> 피서는 궁극적 실재의 다양한 표현으로서 세계종교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종교 간 대화’를 위한 토대로서 종교 간의 공통점을 부각시켰다. 그녀는 종교전통으로는 (1) 토착종교들, (2) 힌두교, (3) 자이나교, (4) 불교, (5) 도교와 유교, (6) 신도, (7) 조로아스터교, (8) 유대교, (9) 기독교, (10) 이슬람, (11) 시크교, (12) 신종교운동 등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스마트의 지역별 구성보다는 기존의 세계종교를 전통별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접근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다양성 보다는 일치점을 제시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장마다 간단한 소개가 달린 참고문헌들이 제시되고 있다. 피서의 저서가 지닌 구성의 측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종교의 이야기와 종교인의 증언을 ‘분석 없이’ 실었다는 점이다. 다양한 신화와 경전이 직접 인용되는 부분에서는 아프리카 요르바족의 오선(Osun) 여신 신화, 북아메리카 태양무(Sun Dance), 원숭이 추장 하누만(Hanuman)에 관련된 힌두교 신화, 독학(Sawadhyaya)운동, 자이나교의 수행자에 대한 규례, 바후발리(Bahubali) 이야기 등을 다루었고, 종교인을 인터뷰한 사례에서도 러시아 부르야티아 무녀, 켈커타의 라마크 리슈나 여신자, 방콕의 두 여성불자, 대만의 여성유교인, 조로아스터 여성신자, 독일출신 통일교 여성신자 등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세계종교인의 정체성과 삶에서의 종교적 의미를 그들의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와 피서의 저서가 단일 저자에 의하여 세계종교가 소개된 것에 비하여, 최근 에딘버러대의 교재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런던대의 힌넬과 랑카스터대의 우드헤드가 각각 편집한 세계종교에 관한 저작들은 다양한 종교전통의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힌넬은 서양에서 성장하는 다양한 동양종교들의 이주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종교들을 소개하고 있다.<sup>7)</sup> 첫 번째 부분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조로아스터교를 시작으로, 힌두교, 시크교, 자이나교, 불교, 중국종교들, 일본종교들, 북미토착종교들, 태평양종교들, 아프리카종교들, 원시사회의 신종교운동들, 현대서구사회의 대안종교들, 바하이 신앙 등을 소개하고, 두 번째 부분은 ‘교차 문화적’(cross-cultural) 관점에서 성(gender)과 영성(spirituality) 및 ‘이주종교’(diaspora religion)의 분포와 특징을 살펴본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표적인 서양국가에 유입되어 성장하고 있는 남아시아 종교들(힌두교, 이슬람, 시크교, 자이나교)의 발전상황과 특징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영국을 비롯한 최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 다종교 다민족 현상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는 21세기 다문화 종교교육의 관심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에서 세계종교를 교수할 때에 하나의 연구모델로 삼을 만하다.

6) Mary Pat Fisher, *Living Religions* (London: I. B. Tauris Publisher, 1997), pp. 9-37.

7) John R. Hinnells, *A New Handbook of Living Religions* (Oxford: Blackwell, 1997), pp. 1-2.

특히 런던대의 힌넬은 리즈대의 여성 종교학자 노트(Kim Knott)의 논의를 수용하여 디아스포라종교의 연구 분야로서 (1) 언어의 위치, (2) 전통의 이주, (3) 개인 정체성, (4) 공동체 정체성, (5) 지도력, (6) 보편화, (7) 서구종교사상의 영향 등 일곱 영역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우드헤드가 편집한 저서는 2001년 타계한 ‘랑카스터 종교학과’의 아버지 스마트(1927-2001)에게 헌정되었는데, 랑카스터대 종교학 교수진을 중심으로 영국과 미국의 종교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영어권 종교학자들의 공동연구서이다. 우드헤드는 편집인으로서 “현상학적 연구”를 기본으로 한 경전연구를 넘어서, 인물, 사건, 신념, 실천, 의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경험적 연구”를 병행한다. 따라서 그녀는 종교를 그 자체의 용어로 이해하면서도 변화하는 상황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정치, 경제, 성, 제국주의, 권위, 공동체, 문화의 종교에 대한 영향을 탐색한다. 특히 근대화에 따른 종교전통의 변화와 성의 역할과 세속화에 따른 종교의 의미와 기능을 재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학과 인류학과 같은 사회과학적 방법을 병행한다.<sup>8)</sup>

요컨대 최근 에딘버러대에서 지향하는 세계종교에 대한 교수법은 단일저자에 의한 구조화된 해석보다는 종교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을 젠더(성)의 문제와 다문화적 포교를 통한 종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영국사회의 현재 종교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나아가 영국교육의 특징인 공동강의의 전체를 책임지는 교수가 모두 여성교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Ⅲ. 한국의 세계종교 교수법: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의 사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종교 교수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필자가 강의했던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의 세계종교 관련 강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먼저, 국립대학 서울대 종교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세계종교〉 관련 강의는 다양하다.<sup>9)</sup> 그러나 종교학 전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전공강좌 〈세계종교〉와 비전공자를 위해 개설된 교양강좌 〈세계종교입문〉은 큰 차이가 있다. 전공수업에는 이미 종교학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갖춘 전공자에게 보다 심화된 주제와 최근 종교학 방법론에 대한 경향을 함

8) L. Woodhead, ed.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London: Routledge, 2002), pp. 1-12.

9) 2009년 1학기 서울대에 개설된 ‘전공’ 강좌는 〈세계종교〉를 비롯하여 개별종교에 대한 개론과목으로 〈불교개론〉, 〈이슬람개론〉, 〈한국유교〉, 〈한국기독교〉 등이 개설되어 있고, 종교학방법론으로는 〈종교현상학〉, 〈종교심리학〉 등이 개설되었다. 반면에 ‘교양’ 강좌로는 〈세계종교입문〉이 200명 정원으로 개설되어 있고, 하계학과 동계학기에도 2강좌씩 개설되어 있다.

게 소개함으로써, 기존 종교학과 세계종교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강의하지만, 교양강좌에서는 종교 관련 강좌를 처음 수강하는 혹은 종교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수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공강좌이든 교양강좌이든 상관없이, 수강하는 학생들이 종교학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방식대로 난이도와 강의수준에 큰 편차를 줄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둘째로, 가톨릭 예수회 배경을 지닌 서강대 종교학파가 개설하고 있는 세계종교 관련된 강의에는 전공강의 〈종교의 이해〉와 교양강좌 〈세계문화와 종교〉가 있다. 필자가 2007년부터 강의해 온 〈종교의 이해〉는 다른 개별종교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강좌들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세계종교에 대한 윤곽을 잡아주고 동시에 종교학이 지향하는 다양한 방법론의 틀을 구체적인 종교들의 이해에 적용을 몇 가지 제한된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공강좌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교학 전공자와 복수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어, 기초적인 지식과 심화된 지식의 균형을 이루는 점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개신교 감리교 배경을 지닌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기독교학과의 전공강좌 〈세계종교와 한국종교〉와 한국학과 관련하여 세계종교와 관련된 강의를 영어로 제공되고 있다. 서울대와 서강대와 같은 남녀공학과는 달리 여학생들의 주의를 관심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세계종교에 나타나는 여성상징과 여성주의(feminism)의 관점에서 세계종교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이대가 개신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고, 수강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기독교학 전공자이고 기독교학 비전공자인 경우에도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교수는 기독교적 관점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확보하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교에서 세계종교를 교수하는 작업이 안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첫째, 영국과 달리, 1년 단위가 아닌 한 학기 단위로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대신에 종교의 핵심적 교리와 상징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된다. 매 학기 강의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수할 종교전통의 범위를 정할 때,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그 종교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힌두교와 유대교 및 이슬람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한국의 소장파 종교학자들에 의하여 집필된 『세계종교사입문』에는 교수할 세계 종교전통의 범위에 대한 고민이 일찍부터 잘 드러나 있다.<sup>10)</sup> 이 저서는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등 세계 6대 종교를 역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류경희는 힌두교를 기술하는 과정 안에 자이나교와 시크교를 포함시킴으로써 상호 영향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만, ‘힌두교의 입장에서’ 두 종

10)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세계종교사입문』, 개정증보판 (서울: 청년사, 2003), 5-19쪽.

교의 독특성을 회색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사실 ‘힌두교’라는 표제보다는 ‘인도종교’라는 표제가 적합할 정도로 불교와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기술을 담고 있다. ‘불교의 역사’를 집필한 송현주는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지역적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최근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티베트불교와 서양불교에 대한 기술은 부족해 보인다. 이용주와 김호덕이 집필한 유교부분도 역사적 기술에 치우쳐 있어 교리, 의례, 공동체 등과 같은 구조적 분석이 약하다는 인상을 받고, 도교도 신앙체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했지만 너무 간략하다. 반면에 박규태는 유대교의 의례와 역사를 함께 소개했으며, 신광철은 동방과 서방의 기독교를 역사적 발전과 특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최근 비서구지역에서 발흥하는 세계기독교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간과되어 있다. 그러나 윤승용은 오히려 이슬람의 역사를 신앙체계에 대한 부분으로 적절이 보완하였다. 이 저서는 주로 특정종교의 역사적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종교 간 비교연구를 위한 구조적인 연구와 교수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 주차 | 서울대(주 1회 연강)           | 서강대(주 1회 연강)        | 이화여대(주 2회 분강)    |
|----|------------------------|---------------------|------------------|
| 1  | 강의개요<br>종교학방법론         | 강의개요<br>종교의 구성요소    | 강의개요<br>종교의 여성상징 |
| 2  | 힌두교와 힌두교인              | 힌두교와 신화             | 힌두교와 여성          |
| 3  | 불교와 불자                 | 불교와 교리 / 의례         | 불교와 여성           |
| 4  | 자이나교 / 시크교             | 자이나교 / 시크교와 윤리      | 자이나교 / 시크교와 여성   |
| 5  | 종교공동체방문(1)             | 유교와 공동체             | 유교와 여성           |
| 6  | 유교와 유교인                | 도교와 경험              | 도교와 여성           |
| 7  | 도교 / 신도와 도인            | 신도와 물질문화            | 종교영화상영(1)        |
| 8  | 중간고사 혹은 보고서            | 중간고사 혹은 보고서         | 중간고사 혹은 보고서      |
| 9  | 그리스로마종교<br>이집트종교       | 그리스 / 로마신화<br>이집트신화 | 고대신화와 여성         |
| 10 | 조로아스터교와 파시<br>유대교와 유대인 | 조로아스터교 / 유대교와 신학    | 조로아스터교 / 유대교와 여성 |
| 11 | 기독교와 기독교인              | 기독교와 윤리             | 기독교와 여성          |
| 12 | 이슬람과 무슬림               | 이슬람과 의례             | 이슬람과 여성          |
| 13 | 종교공동체방문(2)             | 신종교와 공동체            | 신종교와 여성          |
| 14 | 한국신종교와 민족종교            | 북미인디언경험             | 북미인디언종교와 여성      |
| 15 | 북미 / 아프리카종교            | 신종교와 물질문화           | 아프리카종교와 여성       |
| 16 | 기말고사 혹은 보고서            | 기말고사 혹은 보고서         | 기말고사 혹은 보고서      |

둘째, 위의 표는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의 강의계획서에서 강의하는 종교전통들을 주차별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에서 세계종교강의는 주로 대형 강의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개별 강독상황과 이해의 정도를 토론의 방식을 통해 판단하기가 어렵다. 일방적인 강의진행은 토론참여의 저하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점에서 한국에서 다문화 종교교육은 질의문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국식 교육체계와는 거리가 있다. 물론 강의방식의 변화는 교수의 역량에 달려 있겠지만 이미 ‘주입식’ 혹은 ‘강의식’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대와 서강대는 주 1회 3시간 연강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별로 단절 없는 강의가 가능하고, 1-2회 정도 계획되는 현장조사에 충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이대의 경우 1시간 15분씩 두 강좌로 나누어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매주 2회 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현장방문은 학생들이 강의시간 외에 추가로 시간을 정하여 조별로 혹은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형편이며, 영상자료를 감상할 때에도 나누어 감상하여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발견된다.

서울대는 인문학적 토양에 기초하는 분위기를 고려하여, 종교전통 자체보다는 종교인을 이해하는 스미스의 ‘인간주의적 이해방식’을 선택했고, 서강대의 경우에는 종교에 대한 방법론과 세계종교의 사례연구를 연결시킨다는 취지에서 스마트의 종교현상의 차원들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반면에 이대의 경우에는 (여)성의 관점에서 종교전통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상황적 이해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했다.

영국 에딘버러대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접 상호 대면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많지 않지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대학교 강좌마다 제공되고 있고, 학생들도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각 대학마다 사이버 캠퍼스(예를 들어, 서울대 etl 서비스, 서강대와 이대의 사이버캠퍼스, 성신여대의 교육포탈 등)가 제공되어, 수시로 공지사항을 알리고, 학생의 개별적 질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론방을 운영하여 종교와 관련된 민감한 사회적 문제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학생들의 열띤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학생들의 토론참여를 평가에 일부 반영하고, 교수가 직접 문제의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들 간 토론과 협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올리고 다른 학생들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토론이 실제적인 직접 토론과는 차이가 있어 즉각적인 반응과 다수토론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셋째, 세계종교를 강의할 때 한국어 교재 선택이 쉽지 않다. 이미 다양한 번역서와 개론 수준의 세계종교 교재가 종교학자들에 의하여 출판되어 왔지만,<sup>11)</sup> 21세기 한국의 다종

11) 최근 출판된 저서들 가운데 서울대의 윤이훈·최종성 교수가 공저한 『세계의 종교』(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는 방법과 내용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개별 종교의 특수성을 역사적 안목으로 바라보며 세계종교의 4단계 변화론으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13장에서는 토착종교와 세계종교의 만남을 중

교상향과 최근 세계종교의 변화를 토대로 기술된 다문화 종교교육의 방향에 부합할 만한 서술방식을 지닌 교재를 찾는 일은 교수에게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한국종교학자들의 기존 저술들과 외국학자들의 저술들을 함께 참고하여 나름대로 강의안을 작성하고 제한된 필독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준비한다. 이제 대학에서 원서를 과거 처럼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과 학문적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고, 학부시절부터 학생들이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교재를 복사하는 일은 거의 근절된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 학자들에 의하여 출판된 저서들이 교재로 선택되었을 때 갖는 한계는 무엇일까? 이미 앞에서 한국종교문화연구소가 발간한 공동 저서를 살펴보았듯이 종교에 대한 역사 중심적 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체계적이며 구조적인 비교를 위한 교재가 절실히 필요하다.<sup>12)</sup> 여기에서는 대표적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오강남과 이찬수의 저서가 지닌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자.

오강남은 서울대 종교학과 출신으로 캐나다 맥마스터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25년 넘게 리자이나대에서 비교종교학을 가르쳤다. 2003년 그의 저서 『세계종교 둘러보기』는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신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동학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자이나교와 시크교는 소략하고 있다. 그는 세계종교에 접근하는 태도로서 종교현상에 대한 ‘관찰, 판단중지, 본질직관, 및 비교연구’를 강조하는 종교현상학적 방법을 채택한다.<sup>13)</sup> 나아가 ‘비교백적, 비환원적, 비교구적, 체계적, 맥락적’ 종교학을 기초로 분석한 내용은 세계종교를 강의하는데 적합하지만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토착종교와 신종교운동이 간과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속, 증산교, 원불교, 통일교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북미 지역의 토착종교를 누락시켰다. 그리고 바하이교를 이슬람 안에 포함시킨 점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오히려 현상학적 관점을 유지한다면, 자이나교와 시크교처럼 분리시켜 독립된 장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미를 연구지로 삼고 있는 저자는 ‘서구 중심적 관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한국적 사례가 결여된 곳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특히 결론에서 ‘다종교현상’과 ‘다원주의’를 동일시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서강대에서 비교종교학을 수학한 이찬수는 “한국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출판한

교혼합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12) 종교현상의 다양한 차원 가운데, 경전을 중심으로 세계종교를 살펴 본, 한국전통문화연구회가 펴낸,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1)와 의례의 측면을 부각시킨 한신대의 류성민 교수가 번역한 벨(Catherine Bell)의 『의례의 이해』(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007)가 교재로 사용할 만한 대표적 저서들이다. 그러나 란츠콥스키(Günther Lanczkowski)의 *Einführung in die Religionsgeschichte*, 1983, 박규식 역, 『종교사 입문』(서울: 분도출판사, 1997)은 기독교 중심으로 세계종교에 대한 안목을 정리했다는 한계가 있다.

13) 오강남, 『세계종교 둘러보기』(서울: 현암사, 2003), 351-353쪽.

『종교로 세계읽기』에서 “한국인의 삶 속에서 들어와 한국인의 일부가 되어 있는 종교”로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무교, 한국신종교 등을 소개한다.<sup>14)</sup> 그러나 그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하바드대 종교학자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의 인격적 신앙주의 접근을 토대로 결론부분에서는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을 ‘유교적 그리스도’와 ‘무속적 분위기’로 규정함으로써 “종교문화의 상호침투”라는 소재목과는 달리 전통 종교들이 기독교에 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 안의 담론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예를 들어, 다양한 한국종교들(불교, 이슬람, 신종교 등)의 기독교화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요컨대 세계종교교수의 한국 사례에서 강의가 한 학기 단위로 대형 강좌로 교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국의 사례와는 달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이버 매체를 활용하여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어 교재를 선택할 때에도 한국적 상황과 세계적 동향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입체적인 저서를 발견하기 힘들며, 교수할 종교전통의 범위와 종교현상에 접근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현상학에 기초한 ‘공감적’ 이해보다는 ‘상황적’ 해석이 드러난 저서들이 주를 이루었다. 문제는 상황적 해석이 저자의 주관적 경험과 시각에 따라 세계종교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너무 일반화하는데 일조한다는 점이다.

#### IV. 세계종교 교수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지금까지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각 모델이 안고 있는 장단점을 기술하였다. 요약하면, 가장 큰 특징은 공동강의와 단독강의, 일 년 단위와 한 학기 단위, 실질적인 강독토론과 사이버 토론의 활성화, 그리고 다종교상황의 상이한 양태가 교재에 반영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제 필자는 세계종교 교수방식을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제안을 할 것이다.

첫째, 세계종교에 대한 다문화 종교교육이 강의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답사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종교공동체를 방문하면 학생들이 종교에 대한 실재적 지식과 현장 감각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방문 시 학생들에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문화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방문의도를 미리 숙지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종교’인 이슬람 성원을 방문할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설명하면 학생들의 종교방문이 지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14) 이찬수, 『종교로 세계 읽기』(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4-17쪽.

- 1) 강의시간에 배웠던 이슬람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다른 점에 주목할 것.
- 2) 가능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성원 내에서는 정숙할 것.
- 3) 무슬림들과 접촉하기 전에 먼저 교수와 성원관계자의 허가를 받을 것.
- 4) 무슬림선교사(다이)가 이슬람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 파악할 것.
- 5)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너무 일반화하지 말 것.
- 6) 이 방문은 현장수업이므로 무슬림(이슬람교인)으로 등록하지 말 것.
- 7) 이슬람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할 것(사진촬영, 문서수집, 인터뷰 등).
- 8) 성원방문 중에 관찰한 내용과 새롭게 배운 사실을 꼼꼼히 기록할 것.
- 9) 다이의 설명을 경청하고 질의문답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
- 10) 개인행동을 삼가고 인솔자의 안내와 지시를 따를 것.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중앙성원(마스지드)을 방문할 경우, 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1시간 정도 무슬림선교사에 의한 이슬람 문화와 신학에 대한 시청각자료와 전반적인 설명이 제공된 후에 질의문답시간을 갖는다. 1층 강의실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전국성원의 모습들과 꾸란 및 이슬람 예술품을 감상한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2층 남성에배당에 올라가 성원 내부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 직접 관찰한다. 의무기도를 행하는 무슬림들이 있는 경우에서,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도의 방식과 예배당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전술했던 강의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문답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예배당 외부로 나와 성원이 지닌 외적인 기본 구조와 상징들(초승달, 서체장식, 첨탑, 돔 등)을 설명한다.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수는 방문의 취지를 학생들에게 수시로 설명하고 그러한 취지에 맞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현장답사를 인솔해야 한다. 성원 근처에 있는 무슬림이 운영하는 서점, 식당, 상가도 이슬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들이다.

둘째, 종교지도자(스님, 주교, 신부, 수녀, 목사, 무속인 등)를 특강형식으로 초청하거나 인터뷰한다. 강연자를 섭외하는 경우에 교수가 미리 현장답사를 통해 강연자와 친분을 형성하면 특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전문적인 분야로 특강이 전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내용을 조율하는 일도 중요하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세계종교 강좌에서는 대체로 개론적 수준의 지식이 전달되지만, 타종교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며 종교지도자가 지닌 타종교에 대한 의견과 태도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편 강연자를 섭외하기 힘들 때에는 교수가 지정하거나 학생이 선택한 종교지도자를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방식을 하나의 과제로서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인터뷰의 경우에도 교수가 학생에게 특정한 질문을 제공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일종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인터뷰과제는 단순히 문답식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인터뷰 자체에 대한 학생 자신의 평가를 첨부하도록 유도한다. 기독교의 경우, 한국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가톨릭과

개신교 전통 외에 정교회(orthodox church)의 대표를 초청하는 것도 세계기독교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현대 문화(음악, 회화, 영화 등)에 나타나는 종교적 상상력을 해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강의실에서 활용한다. 특히 최근에 한국영화(〈밀양〉, 〈친절한 금자씨〉, 〈추격자〉, 〈박쥐〉)에 나타난 종교와 관련된 쟁점과 담론을 분석하거나 대중음악과 현대미술에 나타난 종교상징과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종교가 고답적인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문화 안에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종교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교적 상상력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숨겨진 종교의 상징과 기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도 학생 스스로 문화를 통한 종교읽기의 감각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이 직접 박물관(대학박물관, 종교박물관, 성지 등)이나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종교의 예술과 의례의 측면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박물관은 정적인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지만 축제는 살아있는 응축된 기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종교공동체의 일상적 의례가 아닌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거나 공동체의 기억을 강화하는 다양한 축제들(석가탄신일, 성탄절, 종묘제례, 아랍축전, 바하이성일 등)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닌 ‘참여’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종교의 물질적인 측면을 간과하기 쉬운데, 현장에서 습득된 오감을 통한 입체적 기억은 종교의 이해를 보다 구체화하며 종교상징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총체적으로 제공한다.

다섯째, 단답식 시험보다는 논술식 시험 혹은 연구보고서 작성을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이 갖고 있는 평소의 관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창조적 답안 작성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의 7가지 차원을 토대로 종교를 만들어 보라”는 문항의 경우, 종교의 이해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위한 동기부여(“만들라”)와 기본 지식(“7가지 차원”)의 확인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혹은 “자신의 일대기를 영웅 신화의 관점에서 기술하라”는 문항은 학생 스스로 본인의 지나온 과거를 ‘종교적 관점에서’ 삶에 대한 의미를 되묻고, 고통과 역경에 대한 극복기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 자신의 실존적 자리를 종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탐색할 기회를 준다.

위에 제시한 제안들은 교수의 강의를 통한 사전교육과 기초지식에 대한 충분한 전이해가 형성되었을 때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일률적이며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보완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몇 차례의 방문과 답사로 ‘세계’와 ‘종교’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점도 사실이다.<sup>15)</sup> 그러나 ‘살아 있는’ 종교에 대한 ‘역동적인’ 지식은 세계종교를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15) Tomoko Masuzawa, *The Invention of World Relig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pp. 2-13. 마수자와는 서구 종교학 담론에서 ‘세계종교’의 개념이 지닌 이념적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

## V. 결론: 21세기의 다문화 종교교육

왜 세계종교와 세계종교 교수법인가? 필자가 학부시절 한국에서 〈세계종교〉를 비롯한 종교학 강의를 수강했을 때에는 매우 적은 학생들이 교수와 원서를 조금씩 읽어나가곤 했다. 이렇게 반복된 경험과 기억은 종교 관련 과목은 으레 대부분 학생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래서 고루하고 소외된 과목이라는 편견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 선입견은 미국과 영국에 머물며 종교학을 수학하면서 산산이 깨졌다. 종교학 과목, 특히 〈세계종교〉와 관련된 교과목은 대학생들이 운집하는 그래서 2년에 걸쳐 동일한 과목을 연속해서 그것도 대형 강의로 개설해야 하는, 그리고 교수와 학생의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학문적 축제’의 ‘상호 배움의 장’과도 같았다. 현재 둔화된 경제성장과 높은 실업률 맞고 있는 한국의 대학교육이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 실용교육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종교적 물음을 제기하는 학생들의 수도 늘어가고 있고 따라서 〈세계종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대학교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세계종교〉 교과목에 대한 다문화 종교교육의 가용한 하나의 모델을 점검해 보았다. 두 지역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양자의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였고, 상호 보완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이 세계종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한다. 단순한 지식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수적인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세계종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꾸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꾸란을 보고 만지고 이맘을 만나기도 하고, 랍비를 만나 유대인의 절기들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며, 가톨릭교회를 방문하여 신부나 수녀를 만나기도 한다. 힌두교의 다양한 신들을 색종이로 만들어보기도 하고 축제에 참여하고 티베트불교의 대표자 달라이 라마를 직접 만나기도 한다. ‘텍스트’(text)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세계종교 교육과는 달리 ‘상황’(context)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종교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설명한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의 다문화 종교교육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영국의 고등교육이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철학적 경향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다양한 종교공동체들이 공존과 대화 및 화해를 추구해야하는 영국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다.

21세기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할 바람직한 다문화 종교교육은 세계종교에 대한 이해가 편견 없이 그리고 공감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물이해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통합시키는데 분명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원불교, 이슬람, 무속 등 소수자의 종교에 대한 경시와 오해도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교육

자로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학자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책임이 있는 것일까? 세계화와 한국화를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야 할, 21세기 미래 한국사회의 동량들을 교육하는 우리는 그들에게 대화와 공존의 지혜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서구세계를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태평양의 섬들에 퍼져 있는 세계종교의 개별전통들은 사실 ‘종교교육의 블랙홀’에 비유할 만큼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지적 도적으로 가득하다. 인류가 태고부터 꾸어 온 꿈과 배워 온 지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표로 세운만큼, 〈세계종교〉를 획일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기보다는 존경과 사랑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들의’(their) 세계관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타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들도 종교교육 담론의 주체가 되어 ‘우리의’(our)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배우는 지구적 접근이 세계종교 교수법을 통한 다문화 종교교육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안신 · 허우성. '스코틀랜드 종교학의 회고와 전망'. 『인문논총』 59. 서울: 서울대학교인문학 연구원. 2008.
- 오강남. 『세계종교 둘러보기』. 서울: 현암사. 2003.
- 윤이흠 · 최종성. 『세계의 종교』.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 이찬수. 『종교로 세계읽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한국전통문화연구회 편.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1.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편. 『세계 종교사 입문』. 개정증보판. 서울: 청년사. 2003.
- Bell, Catherine. *Ritual: Perspective and Dimen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류성민 역. 『의례의 이해』.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7.
- Cole, W. Owen, ed. *Six Religions in the Twentieth Century*. Cheltenham: Hulton Educational Publication, 1984.
- Edwards, Linda. *A Brief Guide to Beliefs*.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Eliade, Mircea and Ian Couliano, ed. *World Religion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1.
- Ellwood, Robert S. *Many Peoples, Many Faiths*. 2nd, ed. London: Prentice-Hall International, 1982.
- Fisher, Mary Pat. *Living Religions*. London: I. B. Tauris, 1997.
- Hinnells, John R. *A New Handbook of Living Religions*. Oxford: Blackwell, 1997.
- Lanczkowski, Günther. *Einführung in die Religionsgeschichte*. 1983. 박규식 역. 『종교사 입문』. 서울: 분도출판사. 1997.
- Masuzawa, Tomoko. *The Invention of World Relig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 Morgan, Peggy, ed. *Ethical Issues in Six Religious Tradition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6.
- Noss, John B. *Man's Religions*. 5th ed. London: Collier Macmillan Publisehrs, 1974. 윤이흠 역. 『세계종교사』. 서울: 현암사. 1986.
- Oxtoby, Willard G. ed. *World Religions-Eastern Traditions*.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Oxtoby, Willard G. ed. *World Religions-Western Traditions*.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Parrinder, E. P. *What World Religions Teach*. London: George G. Harrap, 1963.
- Smart, Ninian. *The World's Religion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윤원철 역. 『세계의 종교—동굴벽화에서 현대의 다원주의까지』. 서울: 예경. 2004.
- Smith, Huston. *The World's Religion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1.
- Whaling, Frank, ed. *Religion in Today's World-The Religious Situation of the World*

*from 1945 to the Present Day*. Edinburgh: T & T Clark, 1987.  
Woodhead, Linda, ed,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London: Routledge, 2002.

---

원고접수: 2009년 5월 19일 1차심사: 6월 8일 게재승인일: 6월 19일

연구자 소개: 안 신

① 전공: 종교학 / 소속: 경희대학교 연구박사

② 관심영역: 종교심리학, 종교교육,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세계종교, 신화학

③ 주요논저: 「잉글랜드와 웨일즈 종교교육의 최근 변화와 그 한계」, 「이슬람 다와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교연구」, 「조나단 스미스의 종교현상학 연구」 등

④ E-mail: shinahn@snu.ac.kr

---

**Abstract**

**Teaching World Religions &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on British and Korean Cases—**

**Ahn, Shin**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compares the British teaching system of world religions with the Korean one by analyzing their forms, contents, and texts in the University level of teaching world religions. Though the modern society asks its citizens to have broad knowledge and open attitude toward world religions, the organization and evaluation of teaching system is a difficult process within the academia of religious studies..

First, the British system (eg. University of Edinburgh) is mainly based on the team teaching of experts, one year rotation system, and its emphasis on discussion group. Second, the Korean system (eg. Seoul National University, Sogang University, and Ewha Womans University) has main characteristics such as one lecturer system, one semester rotation, and its emphasis on lectures. In order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between faculty and students, the author gives five suggestions: (1) visits to religious community, (2) special lectures of religious leaders, (3) active usage of media contents, (4) participation in religious festivals, (5) creative themes for report and test. Both religious texts and contexts transform the method and theory in teaching world religions.

*Key words : World religions, Teaching Method,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Fieldwork, Media Education, Syllabus*